남원시, "한복 입고 추억 만들어요"

'한복사진 공모전' 23일까지 기간 연장 접수

남원시는 '2022년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복사진 공모전을 오는 23일까지 접수한다.

남원시는 '2022년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복사진 공모전을 오는 2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남원을 배경으로 찍은 한복사진을 공모하는 분야와 남원을 배경으로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한복을 입고 재미있게 표현한 분야의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공모전은 당초 9월 30일까지 접수를 진행했으나 2022 남원시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남원시를 방문해 남원시의 한복문화주간을 즐기고 한복입고 추억을 남길 관광객들의 참여를 위해 10월 23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공모전 기간 연장과 함께 아이패드 프로, 애플워치7, 올리브영 교환권, 스타벅스 음료이용권 등 다양한 상품도 추가되었으며, 공모전은 이메일(namwon_hyundang@naver.com)과 남원예촌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공모전 참여에 한복이 필요하다면, 화이당(광한루원 정문 063-632-8100) 방문을 추천하며, 한복을 입으면 광한루원 무료입장 혜택이 있는 서비스도 있으며,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남원예촌인스타그램(namwon_yechon)과 화이당 블로그(http://blog.naver.com/namwon_hyunda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시 양이환 관광과장은 "한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예향문화도시 남원에서 한복 문화축제도 즐기고, 한복사진 공모전을 통해 일상에서 한복을 즐기고 추억을 간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원=최기주 기자

제32회 동리대상에 박종욱씨 선정

국내 판소리 부문 최고 권위 상으로 판소리 진흥 기여 공로 수상

대한민국 판소리 최고 권위의 '동리대상'에 박종욱(사진) 씨가 선정됐다.

지난 7일 '제32회 동리대상 심사위원회'는 판소리 전통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박종욱 씨를 수상자로 선정하고, 오는 11월 6일 동리국악당에서 시상식을 연다.

박종욱씨는 동리 신재효 판소리 여섯바탕 사설 9점 등 12점의 소중한 자료를 후세에 전했다. 사설(정서본)을 고창군에 기탁하여 판소리 연구에 활용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기여했다.

사설(정서본)의 필사자는 박형일(1864~1932)으로 후손인 박종욱씨가 보관하다 2022년 6월 전라북도 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 현재는 고창 판소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박종욱씨는 1940년 전북 고창군 고수면에서 태어나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서울·광주·나주 등 수차례 이사를 다녔어도 소중한 자료가 소실되지 않고 파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 하는 등 최초의 원형로 소장해 왔다.

사설(정서본)은 동리 신재효선생의 판소리 여섯바탕과 남창춘향가, 동창타령, 적벽가, 심청가, 오섬가, 토별가 등의 작품을 모두 갖추고 있다.

특히 기록되어 있던 '동창 춘향가'가 최초로 발견되어 판소리 연구에 학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 받고 있다.

동리대상은 고창군이 주최하고 (사)동리문화사업회가 주관하여 동리 신재효 선생의 문화예술사적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판소리 전통에 업적을 남긴 사람(명인·명창)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국내 판소리 부문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오는 11월 6일 열리는 시상식에서는 판소리 한마당 공연도 같이 열린다. /고창=김경섭 기자

군산시립교향악단 '제148회 정기연주회' 21일 개최

제148회 정기연주회
Best of Best
2022.10.21.(금) 19:30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단풍이 물드는 가을, 군산시립교향악단이 제148회 정기연주회 'Best Of Best'를 오는 21일 저녁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공연한다.

이번 연주회는 서로 다른 감성과 열정, 그리고 두 명의 지휘자로 베토벤의 향연을 만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첫 무대는 밝고 유쾌한 베토벤 교향곡 7번을 선보인다. 다양한 리듬과 풍성한 화성을 들을 수 있는 교향곡 7번은 베토벤의 낭만주의적 실험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베토벤이 작곡가로서 완숙기인 40세에 작곡한 곡으로 무도회의 음악성을 표현한다.

베토벤 7번을 지휘할 이현근은 지휘자의 대부 Gigsy Marin으로부터 '아주 재능 있는 젊은 지휘자'라는 찬사를 받고 독일, 미국 등에서의 초청까지 성공하며, 미국 고퍼 음악 활동 후 국·내외에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발전시켰다. 현재이다 창원시향, 제주시향, 수원시향, 부천시향을 객원 지휘하여,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지휘자로 부각된 지휘자다.

두 번째 무대는 1812년 베토벤이 교향곡 7번을 발표한 후 불과 5개월 뒤에 이를 휴양지 테플리츠 온천에서 작곡된 교향곡 8번이다. 이 곡은 시원하며 즐겁고 경쾌하다. 또 유머러스하며 즐거운 와중에 통통 튀는 재기발랄함이 돋보인다. 특히 목관악기로 메트로놈의 리듬을 흉내내고, 현악기가 사랑스러운 선율을 들려주며 밝은 기분을 선사한다.

봄날의 궁중 무도회를 떠올리게 하고, 빠른 속도로 달려가다 잠시 숨을 멈추고, 능청맞게 포르테가 나오는 등 예상치 못한 전개가 이어진다. 이 무대를 지휘할 정헌석은 빈 국립 음대 오케스트라 지휘과 졸업, 빈 국립 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을 수료한 뒤 빈 뮤지크페라인 공연에서 빈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했으며, 독일 팔켄 뮤직페스티벌의 카펠마이스터로 활약하는 등 유럽에서 활발한 지휘 활동을 했다. 현재 서울대학교와 상명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군산=김종준 기자

컬투 정찬우가 만든 화제작 락 뮤지컬 '프리즌' 김제 상륙

프리즌
2022년 10월 28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이야기 컬투 정찬우가 만든 화제작!! 락 뮤지컬 '프리즌'이 개최된다.

뮤지컬 '프리즌'은 '넌스 앤 로저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코믹 록 뮤지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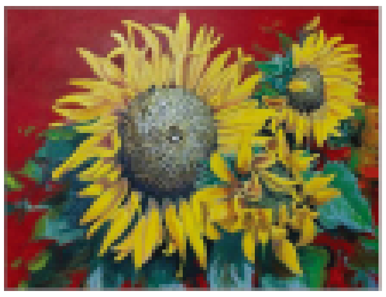
가수의 꿈을 안고 준비를 해왔지만 사기를 당한 넌스 앤 로저스가 돈을 찾기 위해 은행을 털지만, 경찰에 체포되어 교도소에 수감이 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숨겨둔 현금을 찾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로 탈옥에 성공 하지만 은행은 사라지고 빌딩으로 바뀌고 숨겨둔 돈을 찾기 위해 빌딩 내 비트로 취직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재미있게 그려냈다.

프리즌은 배우가 관객에게 직접 찾아가 반응을 유도하고, 때론 관객이 극의 흐름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한다.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세련된 넘버로 이미 콘서트 현장을 흔든 뮤지컬이기도 하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고 김제시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예술이 주는 기쁨과 문화를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한 공연이다.

관람권 예매는 18일 오전 9시부터 현장 및 김제시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한다. /김제=최노라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최초전시지원 프로젝트 '한명희 개인전'


한명희, 삼라만상, 2022.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오는 23일까지 전북예술회관 3층 전시실 3기획에서 '한명희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명희 작가의 첫 전시회다. 작가에 따르면 이번 전시에 대해 "깊어 가는 가을에 시린 이야기다. 저세온 삶이 시나브로 가기도 했지만, 나를 채울 나만의 삶을 꿈꾸었고 조금씩 여물어 가는 대로 가을 정취에 나스콧이 됐었다. 결국 진실한 일탈을 향길 꿈꾼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재단 관계자는 "최초 시각 분야 신진·경력 단절 예술가의 예술계 진입을 위해 전시 공간 무료 대관과 홍보를 지원하는 '최초전시지원 프로젝트'를 운영해 시각분야 예술가들의 활동의 기회 제공 및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재단 예술인복지증진팀으로(063-230-7418)에 문의하면 된다.

/정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쇼핑관광 활성화 사업 광고디자인 공모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11월 10일까지 '2022 전북 쇼핑관광 활성화 사업 광고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개인 또는 3인 이내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부문은 인포그래픽, 스토리 그래픽, 일러그래피 등을 활용한 전북 쇼핑관광 관련 홍보용 광고디자인으로, A3(297mm×420mm) 규격의 JPG 파일 형식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재단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8개 작품을 선정하고,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총 상금은 1,000만 원으로 상금 800만 원의 대상을 포함해 최우수상 150만 원, 우수상 100만 원, 장려상 3팀(명)에 한해서는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증정한다.

모집 공고는 11월 10일까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내에서 응모 지원서를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정준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농업인의 정성이 담긴 최고의 '품질' 최상의 '먹거리'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탑마루 익산
TOP MARU
탑은 최고 의미의 TOP과
마루는 산꼭대기 정상을 뜻 하는 순우리말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국보11호 미륵사지석탑을 빚어냈던 백제의 후예,
익산농업인들의 담대한 소망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익산시농축협조합장운영협의회
농협익산시지부 지부장 이상우 익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병옥 오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채병덕 황등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최사식 삼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박기배 서익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임철석
금마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백낙진 왕궁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배형욱 여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정우창 북익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장복식 망성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조두호 성당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허정현
낭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학필 익산원예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봉학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심재진 탑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김종길